

Left21.com

2011년 11월 26일 토요일 | 한미FTA 폐기 호외 1호 | **레프트21**은 다함께가 후원·지지하는 신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레프트21

비준 무효 명박 퇴진

날치기를 이명박의 무덤으로 만들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총회를 한다면 숨어 있다가 쥐떼처럼 몰려들어서 취재진도 모두 내쫓고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비공개 본회의 날치기”라는 “의회 쿠데타”로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누구도 믿지 않던 이명박의 ‘친서민’,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은 모두 쓰레기가 됐다. ‘화장을 고치’고 날치기에 앞장선 박근혜는 이제 유력 대선주자가 아니라 ‘신묘5적’으로 전락했다.

전경련·경총 등이 즉각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는 환영 성명을 내면서 이 날치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해졌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지적처럼, 이명박은 이 1퍼센트를 위해 “국민들을 향한 테러”를 가한 것이다.

한미FTA는 이명박이 집권 4년 내내 펼쳐 온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를 짓밟는’ 정책의 완결판이다. 한미FTA는 살인적 등록금과 전월세값,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 양극화, 청년실업, 고물가 등의 문제를 몇 배나 강하고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4년 내내

나아가 한미FTA는 “미국식 시장경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한국에 이식”(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하면서 재앙을 부를 것이다. ‘미국 거주 한인여성’들은 성명에서 “맹장수술 4천만 원, 제왕절개 수술 5천만 원, 뇌종양 수술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선 낯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FTA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한나라당 차명진의 헛소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재벌·부자들 위한 ‘천국’일 뿐이고 노동자·민중에게는 지옥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 날치기에 동참한 1백51명의 얼굴이 박힌 <경향신문> 1면을 다트놀이 표적이나 쓰레기 봉투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이다.

‘금방 될 거라더니 뭐하냐는 오바마의 압박도 있었지만,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



물려서지 않는 청년들의 용기와 저항 이 엄동설한에 퍼붓는 물대포가 오히려 들끓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적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고 보고 날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날치기라는 무리수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명박을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다. 날치기가 잠자던 호랑이를 깨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날치기 당일부터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청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와 가두 행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당사 현판이

뜯겨 나가고 의원실 점거가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지지지도 않고 목이 터져라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치고 있다. 야5당도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엄동설한에 살을 찢고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물대포를 뒤집어쓰면서도 물려서지 않는 청년·여성들의 모습은 전율적일 정도다. 물대포가 불길

의 확산을 막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셈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4년 동안 쌓여 온 분노와 불만들이 한미FTA 날치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폭발

그래서 날치기 공범들은 당황하면서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결국 물대포 사용을 일단 멈춰야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날

치기를 보면서 “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의원들이 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국회에 숨어들어서 노동법을 날치기하던 때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총파업이 벌어지면서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 날치기를 철화하고 ‘살아있는 시체’가 됐다.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오늘의 기습 날치기가 이 정권에겐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이미 시작된 거리의 저항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



“진짜 테러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필사적으로 한미FTA를 막으려 한 김선동 의원에게 조중동과 우파들이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야만적인 일”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라며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일부 우파 단체들은 김선동 의원을 검찰에 기소했다. KBS·MBC 등도 최루탄을 부각하며 날치기의 문제를 가리려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야만적인 “테러”를 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미래

가 걸린 한미FTA를 단 4분 만에 날치기하고,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쏘아댄 이명박 정부야말로 야만스러운 “테러리스트”들이다.

“서민들 피눈물나게 할 한미FTA를 처리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은 볼 수 없었다. 억지로라도 대한민국 국회가 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했고 우리 모두의 분노를 대변했다.

“폭탄이라도 있다면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국회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는 김선동 의원의 말도 백배 공감을 얻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이용섭 대변인)며 김선동 의원을 탓한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뒤집어쓰면서 만들어 준 기회도 이용하지 못하고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지금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촛불을 키워서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FTA를 폐기시키자.



미국 전역으로, 대학으로, 노동자들 속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거하라' 운동

전 세계 99퍼센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99퍼센트의 저항'으로 들끓고 있다. 파산하는 좀비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끔찍한 고통이 잠자던 99퍼센트들을 깨워 냈다.

세계적 저항의 신호탄은 단연 아랍 혁명이었다.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리비아·예멘 등으로 확산된 혁명의 물결은 독재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특히 타흐리르 광장 점거와 이집트 노동자 파업은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이 세계를 변혁할 진정한 힘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 줬다.

이것이 전 세계에 준 영감은 매우 강렬했다. 유럽의 저항과 월가 시위는 아랍 민중의 영웅적 투쟁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영국·포르투갈 등 유럽 전역에서 긴축 반대 노동자 파업과 청년·학생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지금 이 운동은 엄청난 혼란에서 허우적대는 지배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그리스의 파판드레우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퇴진했고, 시장 경제와 지배자들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10월 15일 '국제 행동의 날'에는 82개 국가 1천 5백 개 도시에서 무려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성공의 밑바탕이 된 것은 바로 월가 '점거하라' 운동이 준 충격이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위는 탐욕스런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저항의 상징이 됐다.

심장부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은 지금 탄압 속에서도 전국으로, 대학으로, 노동자들 속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이미 열 차례가 넘는 총파업을 벌였고, 영국에서도 11월 30일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군부의 반혁명에 맞서 다시 수만 명이 타흐리르를 점거하고 혁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국제적 운동은 서로를 고무하고 연대하며 발전하고 있다. 월가 '점거하라' 운동은 11월 22일에 미국의 7개 도시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

대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대는 뉴욕 맨해튼 한 국총영사관 앞에서 "우리는 99%다! 1%를 위한 한미FTA 중단하라", "서울과 월스트리트에서도 한미FTA 반대" 등의 팻말을 들었다.

지금의 세계적 저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광장 점거 등에 나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거대한 저항과 노동자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타흐리르 광장 점거가 이집트 혁명을 촉발한 과정이 그랬다. 미국 월가 '점거하라' 운동도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과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해 광장과 학교를 점거하고 거리로 뛰쳐 나온 유럽의 청년·학생 운동도 노동자 파업을 촉발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청년들의 용기와 저항은 지금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저항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세계적 저항의 일부다.

막는 시늉만 하다가 날치기를 자초한 민주당

날치기 당시 민주당의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비준안이 날치기될 때까지 민주당 의원은 절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는 "[민주당에게] 오늘 한다는 암시를 다 했다"며 "민주당이 몸싸움 없이 ... 해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싸고치는 고스톱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날치기 전까지도 민주당은 계속 오락가락했다. 비록 정동영·천정배 등은 한미FTA 반대 투쟁을 선동했지만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반대하는 시늉만 했다.

원내대표 김진표가 '협정 발효 뒤에 ISD 재협상'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협상파'가 똑같은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다녔다.

이런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이 날치기에 길을 열어 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참여정부 때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들이니 이것은 사실 놀랄 것도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 첩자' 구실을 한 김진표는 경제부총리와 장관까지 지낸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핵심이다.

정체성

여기에 "한나라당서 파견되신 분" (공지영)인 손학규가 대표니까 볼 것도 없었던 것이다. 안희정, 송영길 등은 드러내 놓고 ISD까지 옹호했다. 따라서 "문제는" 일부 협상파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경제평론가 선대인의 지적이 옳다.

날치기 이후에도 민주당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다. "총선에 정진 팔린 [민주당] 의원들은 한 톨이라도 예산을 따내고 싶어 ... 날치기 이후 불과 이를 만에 '원외투쟁론'과 '원내복귀론'으로 나뉘고 있다."(<한겨레>) 박지원은 "국회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며 운을 띄우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한계는 이 당의 근본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99퍼센트'의 눈치를 보지만, 그 당의 계급적 기반과 정책은 '1퍼센트'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FTA를 진정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압력을 받아 운동에 참여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좋은 일이지만, 결코 민주당을 신뢰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도권을 쥐게 해서도 안 된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진의 '원죄'가 있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진보의 분열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계속 투쟁의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당은 "내년 양대 선거에서 권력을 교체해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 내자"고 한다. 물론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며 투쟁의 김을 빼면 가장 좋아할 것은 이명박이다.

더구나 한미FTA라는 독약을 일단 삼킨 다음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성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한미FTA는 아직 발효된 것이 아니다. 투쟁이 더 성장한다면 실제로 폐기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노동자·민중은 지난 2005년 강력한 투쟁을 벌여 IMF의 강요로 민영화된 상수도 시설을 재국유화시키고 그것을 추진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

국내에서도 IMF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1998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강력한 점거파업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아낸 바 있다. 2008년에도 우리는 1백만 촛불항쟁을 통해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을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명박은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1퍼센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세 차례나 막아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명박은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운동은 거리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모으며 전진하고 있다. 따라서 위력적인 시위와 거리 행진을 통해 운동의 규모와 힘을 더욱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미 이번 날치기로 18대 국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막장 국회'에 부여 말고 의원직 총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함께 '거리에서 대중 투쟁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중운동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범국본을 확대·개편하고 더 개방적·협

력적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을 참가시킬 필요도 있다. 아랍 혁명과 유럽의 반란이 보여 주듯이 광장 점거를 통해 투쟁을 확대시키는 구심점을 만들 필요도 있다.

반갑게도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24일에 확대 간부 파업도 한 민주노총은 파업 등 더 강력한 행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미FTA가 바로 반노동 정책들의 종합판이라는 것을 알리며 노동자들의 동참을 건설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과 기간산업의 생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힘이 보태질 때, 우리의 저항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과 노동자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 아래서 고통받아 온 다양한 부문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결합시킬 필요도 있다.

‘Occupy 서울’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6시
장소: 대한문 앞
주최: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